



보도시점 2026. 8. 4.(화) 09:00 온라인·방송 2026. 8. 4.(화) 09:00

일주일 체류 후 출국하는 마약 운반책, 끈질긴 추적 끝에 필로폰 16kg(시가 128억 원 상당) 국내 유통을 차단한 경찰서 수사팀,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 경찰청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14건 선정(1억 1천 7백만 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14건을 선정해 총 1억 1,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마약·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국민 생명 중심’, 그리고 국민이 직접 추천한 ‘상습·악성민원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공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찰청은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조직을 끈질긴 추적 끝에 소탕한 경기남부 안산단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의 성과가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안산단원서 형사2과 마약범죄수사팀(문현지 경사 등 3명)은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외국인 마약 조직원 10명을 검거(7명 구속)하고, 해외에 있는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16kg, 약 53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1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전달하고 즉시 출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에 큰 난항을 겪었다.

영문 이름 외에는 생년월일조차 불분명했고, 단기 체류 특성상 국내 연고나 휴대전화 번호 등 추적 단서가 사실상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수일에 걸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처음 검거한 에이(A) 국적 운반책의 경우, 투숙 호텔을 확인한 후 3일간 밤낮없는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객실을 나서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첫 검거된 운반책이 비(B) 국적의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넘긴 정황을 포착한 수사팀은 즉시 체포 영장과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계속 동선을 추적하여 은신처인 숙소를 찾아냈다. 때마침 수사팀은 필로폰 유통을 위해 외출하려던 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문현지 경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국제 마약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제7차 심의에서는 ▲피싱 및 자금세탁 차단 ▲불법사금융·성매매·도박사이트 검거 ▲인명구조 ▲상습·악성민원 대응(국민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을 거쳐 포상금이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기·수시 포상 외에도 7대 공약과제(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관계성범죄, 체납 과태료, 허위·조작 정보, 부패비리, 국민생명 중심)를 중심으로 현장의 우수성과를 상시 발굴·포상하고 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 운영 중이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방에서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기타 주요 포상금 사례(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 ▶ (피싱 등 검거·역베팅 투자사기)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서민층 피해자 922명 상대, 292억 상당의 역베팅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 등 47명 특정, 34명 검거(구속 12), 범죄수익금 약 27억 원 압수, 추징(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경위 정경오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 ▶ (피싱 등 검거·자금세탁 조직) 캄보디아 ○○○조직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세탁한 범죄자금 7,476억 원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은행에서 세탁,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한국 귀화 중국인 1명 구속 송치, 41억 원 기소 전 추정보전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경감 한순석 등 3명, 포상금 700만 원)
- ▶ (상습·악성민원 대응 - 국민추천) 경찰서·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공무원 등 12명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수개월간 상습적 고소·진정은 물론 각 100회 이상 전화 및 방문 폭언, 욕설로 스토킹·모욕·공무집행방해·협박 등을 일삼은 피의자를 전수조사로 검거(구속) (부산경찰청 금정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3명, 포상금 1,000만 원)
- ▶ (국민생명중심·인명구조) 교통사고 현장에서 외관상 피해 없고, 본인도 피해가 없다며 후송을 거부한 요구조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뇌출혈 전조증상(기억상실, 두통) 포착, 출동 종결 조치 후 요구조자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설득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진단받고 골든타임 내 긴급 수술로 인명구조(경남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순경 이영창, 포상금 500만 원)
- ▶ (불법 성매매업소 검거) 경기 서남부권 일대, 오피스텔 25개를 임차 후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25명을 고용하여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 엠지(MZ) 조폭 출신 총책 등 22명 검거(구속 4)(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범죄 예방질서계 3명, 포상금 1,000만 원)

- ▶(불법 도박사이트 검거) 3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1,5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누리소통망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고, 내기한 금액의 1.5 퍼센트 상당 수수료를 취득한 총판 등 운영자 21명을 검거(구속 14)(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1계 경감 박무길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 ▶(불법사금융 검거) ① 선후배 50명이 불법사금융 범죄단체 구성, 최대 이자율 49,101% 고리의 이자 수취, 총 1,009회에 걸쳐 14억 원을 대부한 조직원 37명 검거(구속 19), ②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수법으로 113명에게 총 348회에 걸쳐 약 2억 2천만 원을 대부, 최대 이자율 18,250% 이자를 수취, 피해자 39명을 경찰에 사기로 허위 고소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1)(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1계 경감 강석범 등 3명, 1,000만 원)

담당 부서	경찰청 기획조정관	책임자	총경	최인규	(02-3150-2002)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담당자	경정	배철민	(02-3150-1113)